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으로 새학기과 추석, 계절의 변곡점 속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9월은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선선함이 교차하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다시 분주해지는 달입니다. 누군가는 새 학기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추석을 준비하며, 또 누군가는 남은 한 해를 정리할 결단을 세웁니다. 오늘 이 기도문들이 예배 자리에서, 가정 예배에서, 혼자 드리는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를 맡은 분이라면, 기도문을 그대로 읽기보다 자신의 공동체 상황을 한두 문장 덧붙여 주님께 올려 드려 보세요. 문장은 짧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 전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감사 한 가지와 회개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정예배로 나눌 때는 아이가 한 문장이라도 기도하도록 기다려 주세요. 9월의 일교차와 늦더위 속에서도 주님이 몸 건강을 지켜 주시길 함께 간구합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1 새학기·새출발을 위한 기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96:1)

주님, 9월의 문을 열어 우리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게 하소서. 방학의 흐트러짐을 정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단정히 서게 하옵소서. 시작이 설레면서도 두려운 이들을 아시니, 우리의 첫걸음을 주께서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외우는 힘만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보다 배려가 많게 하옵소서. 교실에서 경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는 말이 입술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직장과 일터의 성도들에게 새 결심을 주옵소서.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성과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과가 늦어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께 드리는 예배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질서를 세워 주옵소서. 자녀의 일정과 부모의 피로가 엉켜 서로에게 날이 서지 않게 하시고, 식탁의 대화가 짧아도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의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새출발이 '나의 의지'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작은 순종을 모아 한 달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 변화가 한 해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9월의 시작을 주께 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의 실패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과 배움, 쉼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이 달을 채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2 추석·가정화해를 위한 기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13)

하나님 아버지,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찾아옵니다. 이동과 만남이 많은 시기이니 안전을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2026년 추석 연휴가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진 만큼,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와 감사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가족의 이름으로 묶였지만 오래 쌓인 말들이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집에는 서운함이, 어떤 집에는 비교가, 어떤 집에는 침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 이 명절에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 세대에게 위로와 주옵소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표현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책임을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경제를 지켜 주옵소서. 명절 비용과 생활비, 학비와 대출로 마음이 눌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넉넉함’보다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방법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만남이 상처의 반복이 아니라 회복의 첫 장이 되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말로 마음을 찌르지 않게 하시고, 조심스러운 순간마다 성령께서 혀를 붙드사 화평하게 하옵소서. 함께 식탁에 앉아도 외로운 이가 없게 하시며, ‘잘 지내니?’라는 한마디가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지켜 주시고, 남은 여정 속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게 하옵소서. 명절이 끝난 뒤에도 전화 한 통, 안부 한 줄로 관계의 온도를 지키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3 태풍·기상재해와 안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시편 46:1)

주님, 9월의 하늘이 한결 선선해져도 재난의 위험은 남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기상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7~9월에 집중된다고 말하니, 방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다와 강과 산을 지으신 주께서 바람과 비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준비를 소홀히 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재난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태풍과 호우로 위험한 지역에 사는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반지하, 노후 주택, 침수 우려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의 가정들을 특히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대피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뛰는 소방·경찰·공무원·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이 ‘안전한 습관’을 배우게 하옵소서. 비상 물품을 점검하고, 어르신과 아이들의 동선을 살피며, 재난 문자와 안내를 가볍게 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무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준비가 함께 가는 성숙을 주옵소서. 주님, 재난 이후의 마음도 돌보아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실감과 불안을 만져 주시고, 교회가 위로의 손길을 먼저 내밀게 하옵소서. 또한 기후의 변화 속에서 9월의 늦더위와 잦은 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별하고 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보호하심에 기대어 무책임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4 교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0:24)

주님, 9월은 교회도 다시 리듬을 찾는 달입니다. 여름 사역의 피로가 남아 있는 이들, 관계의 틈이 생긴 이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들을 주께서 아시니 우리를 다시 모아 주옵소서. 숫자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편의가 신앙의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일의 거룩함을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봉사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로 평가받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을 끊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한마디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가족과 다음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낯선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이 환대와 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신앙은 내 삶과 상관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옵소서. 질문하는 마음을 야단치지 말게 하시고, 함께 답을 찾는 어른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갈등이 있는 부서와 팀에도 화해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해가 쌓여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 주시고,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깎아내리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9월에 다시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인사하고, 한 번 더 기도해 주며, 한 번 더 기다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상처 입은 이들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5 수험생·진로를 위한 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주님, 9월은 수험생과 구직자,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의 마음이 가장 예민해지는 때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6년 11월 19일(목)에 시행된다고 하니, 남은 시간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 그 부담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 공부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잠을 줄이는 것으로 승부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리듬을 지키며 집중하게 하옵소서. 비교의 말이 마음에 꽃힐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이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분별을 주옵소서. 면접과 시험, 포트폴리오와 지원서 작성 가운데 정직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나의 가치를 결과로만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와 교사, 멘토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조언이 통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격려가 압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 주는 눈을 주시고, 기도의 손으로 지켜 주게 하옵소서.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거짓말을 끊어 주시고, 사랑이 먼저라는 복음을 가정에 다시 심어 주옵소서. 주님, 결과의 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지켜 주옵소서. 합격과 불합격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론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실패의 문 앞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성공의 자리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진 어깨에 평안을 부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남은 계절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9월) 6 나라·이웃사랑을 위한 기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디모데전서 2:1-2)

하나님, 9월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 삶만 붙들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문제만큼이나, 이 땅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야 함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무관심에 물러섰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주시고, 결정의 순간마다 약한 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게 하옵소서. 사회의 갈등이 더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말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다름을 이유로 미워하기보다, 진실을 찾되 존중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의 무게를 견디는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물가와 주거, 일자리와 미래의 불안으로 지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필요한 이웃에게 실제적인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나눔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이들과 돌봄을 맡은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돌봄의 시간을 보내며 지쳐 있는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의료진과 요양 현장의 손길에도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괜찮다’고 말하며 버티는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알아 주옵소서. 주님, 열방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 혐오와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난민과 약자들의 길에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도 평화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일상에서부터 화해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9월의 기도가 개인의 소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